

‘한국의 풍경’ 공연 개최

한국 전통 무용의 향연을 이틀동안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공동주최로 2023년 7월에 개최했던 ‘한국 전통무용과 음악의 향연’ 공연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후속 공연 ‘한국의 풍경’ 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도 전편 공연에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허영일이 예술감독을 맡고, 한국 전통예술계 중진과 함께 한국의 젊은 예술인들도 함께 하는 무대로 한국 전통 무용의 진수와 함께 흔히 볼 수 없는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레파토리 총 16편의 프로그램을 4.17(수)-18(목) 이틀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의 풍경
- 일시 : 2024.4.17.(수)~18(목) 19:00~20:3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 주최 : 주일한국문화원, 서울국제문화교류회

- 붙임 1. 프로그램
2. 출연
3. 행사 홍보물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행사담당자	팀 장	박지훈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4.17(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 김해숙

산조는 1890년경 만들어진 기악 독주곡으로 전문 연주자의 개인 기량이나 독주 악기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한국 전통음악의 주요 연주 곡목이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함동정월(1917-1994)이 최옥삼(1905-1956)으로부터 전승받은 것으로, 분명한 선율 전개와 논리적인 짜임새를 바탕으로 한다. 느린 데서 시작하여 빠른 장단 쪽으로 옮겨가며 힘차고 곳곳하게 연주한다.

박병천류 진도북춤 / 백진주, 이도영

박병천류 북춤의 기원은 인간문화재 故박병천 선생에 의해 두레곳(농요에 맞춰 일꾼들을 독려하며 흥을 돋우어 주던 곳)에서 소박한 농촌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가락이 농악으로, 또 농악에서 북만을 따로 독립시켜 춤으로 승화시킨 작업의 결실이다. 장단이 풍물 가락과 판소리 가락, 의식의 가락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북을 허리에 고정하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Untitled / 배진호

모두 우연처럼 태어나 필연처럼 살아간다.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린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인간 앞에 주어진 세상, 그리고 던져진 '나'란 존재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소모된 다양한 감정들을 복기하고자 한다. 그러한 감정들을 복기하는 것으로 존재라는 것이 평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영토는 쟁취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춘앵전 / 안덕기

조선조 순조때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숙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이른 봄날 아침에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피꼬리의 자태를 무용화 한 춤이다. 춘앵전은 1893년 궁중정재의 절차를 기록한 예술서 '정재무도홀기'에 무보(舞譜)가 전해진다. 반주음악은 평조영산회상에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염불도드리, 타령 등이 연주된다.

살풀이춤 / 최정임

살풀이춤은 삶의 애환과 한의 정서를 신명으로 승화시킨 춤이다. 절제미와 여백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라는 뜻을 가진 정중동의 춤사위가 큰 특징이다.

비상 / 정혜진

<비상>은 1974년에 한국무용가 최현 선생이 위궤양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창문 밖을 나는 새를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호방한 기개와 절묘한 기품을 담고 있어, 선비의 도량과 한량의 풍류를 멋지게 표현함으로써 춤사위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여백의미는 드넓은 창공을 유유히 나는 학의 고고함과 자유분방함을 잘 드러내며, 이는 특히 경상도 지방의 전통춤인 <덧뵈기춤>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최현 선생이 직접 안무한 이 작품은 그의 예술적 감각과 장인정신이 빛나는 명작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허튼춤 / 백경우

허튼춤은 모든 전통춤 움직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춤으로 흥과 멋이 춤의 주체이며, 분위기에 따라 흥과 멋을 조율하면서 출 수 있는 즉흥성을 발휘하는 춤이다. 특별한 춤옷이나 소도구가 필요치 않으며

장소에 따라 또는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춤의 전후순서를 바꾸어 출 수 있는 점이 이 춤의 장점이다.

산조(散調) - 저 꽃, 저 물빛 / 윤미라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표출시킨 ‘산조’는 시대별, 무용가별로 새롭게 구성되어져 무대화되고 있다. 그 중 윤미라의 ‘산조’는 서정적이고 섬세한 여인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김영재의 철금산조의 운치에 맞게, 현대적 춤사위와 전통 춤사위가 한데 어우러져 창작된 현대의 우리 춤이다.

태평무 / 양성옥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과 왕비가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의젓하면서도 경쾌하고 가볍고도 절도 있게 몰아치는 발디딤새가 신명, 기량의 과시가 돋보이는 춤으로 정·중·동의 미적 형식을 가진 춤이다. 강선영류 태평무는 엄숙함과 장중함속에 춤사위는 화려하고 우아하여 춤의 기품을 느낄 수 있다.

▸ 4.18(목)

김해숙의 풍류노정(風流路程) / 김해숙

산조는 장단 틀에 잘 짜인 음악이고, 시나위는 본디 굿의 반주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요즘은 무대에서 합주로 구성되어 즉흥적인 연주가 펼쳐진다. 이번 연주에서는 시나위 합주를 위해서 만들었던 김해숙 명인의 가야금 가락과 안기옥 산조의 엇모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풍류(음악)를 구성하였다. 옛 명인들의 더늠(더 넣음)과 전통 기법이 묻어나는 새 풍류로 자신의 세계를 펼쳐가고자 한다.

경계:선 / 백진주, 이도영

<경계:선>은 처음 ‘장례’라는 의식을 경험했던 유년을 안무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생이 채 영글지 않은 이의 눈에 비친 죽음은 슬프기만 한 형식적인 세레모니에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옹조려지던 조문객들의 곡소리

무채색의 풍경

차분하지만 묘하게 수선스러운 분위기

흘날리는 향의 묘연한 행방

경건하게 모아지는 두 손의 합장

Untitled / 배진호

모두 우연처럼 태어나 필연처럼 살아간다.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린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인간 앞에 주어진 세상, 그리고 던져진 '나'란 존재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소모된 다양한 감정들을 복기하고자 한다. 그러한 감정들을 복기하는 것으로 존재라는 것이 평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영토는 쟁취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허튼가락춤 / 안덕기

허튼가락춤은 故박병천 선생의 ‘구음시나위’ 음악과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 초연된 작품으로 전통춤에서 마당춤의 인위적이지 않은 춤사위와 섬세하고 조형미가 돋보이는 기방춤을 더하여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남성적인 형태와 음악에서 느껴지는 한의 정서가 깊이 베어인 춤으로 이번 무대에 새롭게 선보이는 안덕기의 새로운 전통춤이다.

애련설(愛蓮說) / 최정임

애련설은 고고한 기품과 맑고 청아한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연꽃 예찬무이다.

진흙속 피어나는 맑고 청아한 꽃
바람에도 흔들림 없어 교태롭지않은 꽃
물결에 모든욕망 비워낸 고고한 꽃
가장 화려한 순간 스스로 꽃잎 떨굴줄아는 아름다운 꽃
떨어질수록 더욱 맑고 깨끗하게 실려오는 연꽃향 춤자락에 휘날리리

태평소 시나위 / 정혜진

태평소 시나위는 태평소의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으로 연주한 정형화되지 않은 기악곡을 의미한다. 시나위는 한국 무속 음악의 일종으로 일명 신방곡(神房曲, 心房曲)으로도 불린다. 무속적이고 전통적이지만 강렬한 음악에 맞춰 최현의 호방하고 담백하지만 화려한 동작이 어우러져 멋있고 힘차게 보여지는 춤이다.

무당춤 / 백경우

무당춤은 경기 도당굿과 전라도 당굿의 무당춤을 기본 춤사위로 하여 굿판의 축제적 신명을 춤으로 작품화 한 춤이다. 이 춤은 신명을 넘나드는 매혹적인 춤사위가 마치 신의 예언을 앞세운 듯 보는 이의 마음을 위압적으로 때로는 신비한 황홀경으로 이끌어 가는 드라마틱한 춤이다.

달구벌입춤 (達句伐立舞) / 윤미라

달구벌은 대구의 옛 지명으로 일명 ‘수건춤’, ‘덧배기춤’ 이라고도 한다. 옛 대구의 멋스런 정서가 녹아있는 교방놀이 춤으로 여성의 다소곳하고 은근한 정감이 깃들여 있다. 달성권번의 박지홍에서 최희선으로 이어지는 이 춤은 조심스럽게 훑날리는 수건과 활기찬 소고놀이의 허튼춤이 조화를 이루는 춤으로 홀 춤이다.

태평무 / 양성옥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과 왕비가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의젓하면서도 경쾌하고 가볍고도 절도 있게 몰아치는 발디딤새가 신명, 기량의 과시가 돋보이는 춤으로 정·중·동의 미적 형식을 가진 춤이다. 강선영류 태평무는 엄숙함과 장중함속에 춤사위는 화려하고 우아하여 춤의 기품을 느낄 수 있다.

붙임 2 출연

허영일 / 예술감독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前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2012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김해숙 / 가야금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
前 국립국악원 원장
독일 루돌스타트 세계월드뮤직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선정

2015년 아리랑 판타지 카네기홀 공연

양성욱 / 무용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
前 서울예술단 무용감독
한국중요무형국가유산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2020년 한국고전예능명인무대 '동행' 출연

윤미라 / 무용

現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진쇠춤 보존회 회장
달구벌입춤 보존회 회장
한국 기무치유험회 회장

백경우 / 무용

現 백경우무용단 대표
고 이매방 선생님 조교
한국중요무형국가유산 제27호 승무 이수자
2015년 제15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정혜진 / 무용

現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예술감독
現 최현우리춤원 회장
前 서울시무용단장
前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최정임 / 무용

前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92호 강선영류 태평무 이수자
前 정동극장장

안덕기 / 무용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교수
現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現 안덕기움직임연구소 예술감독
前 국립국악원 무용단 수석

백진주 / 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 수료
Motion architect Art director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 강사

배진호 / 무용

전북된 해부학적 풍경 SAL 예술감독
 제16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안무부문 젊은안무가전 금상 수상
 제25회 크리티스초이스댄스페스티벌 최우수안무자 선정
 제30회 무용예술상 연기상 수상

이도영 / 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 졸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무용단 ALTIMEETS 단원
 무용단 Humancetance 단원

붙임 3 행사 홍보물



행사 리플릿